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제3보)

이 주 현 · 유 혜 경* · 김 찬 주* · 홍 나 영**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Implications of Wearing 'Hanbok' in Korea: Comparative Study of Asian Ethnic Dresses(Part III)

Joohyeon Lee · Haekyung Yu* · Chanju Kim* · Nayoung Hong**

Dept. of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5. 3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to wear or not to wear 'Hanbok' in Korean society. Twenty six individuals who wear Hanbok relatively often, and twenty seven individuals who don't were purposively sampled and interviewed for the study by structured depth-interview method. A domain analysis, a method of qualitative study, was employed to find out the influential factors from the results of the depth-interviews. From the analysis, fifteen encouraging or discouraging factors to wear Hanbok emerged and were categorized into five domains, which includ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style', 'image', 'practicality' and 'decorative function'. The personal involvement in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oriented family background, good images related to Hanbok, and affordable life-style appeared to be encouraging factors to wear Hanbok. Meanwhile, social norm and role-expectation adjusted to westernized criteria, unaffordable life-style, ill practicality of Hanbok and negative cues associated with Hanbok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people to turn away from Hanbok. The study also revealed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these factors explaining individual's choice of wearing or not wearing Hanbok in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of Korea. Some suggestions to promote wearing Hanbok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Hanbok, ethnic dress, Korea, qualitative study, domain analysis;

한복, 민속 의상, 한국인, 질적 연구, 범주 분석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 연구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는 서구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문화체육부에서는 1996년, 21세기 국가 이미지 일류화 방안의 하나로 우리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5 가지 상징물 중 하나로 한복을 선정한 이래 한복입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이유는, 민속복식은 그 민족 또는 문화권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 일 것이다(홍나영 외, 1999).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민속복식의 착용율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착용되고 있으므로, 한복착용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1960년대에 예술의 한 사조로서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1980년대 이래 점차 범위를 넓혀 문화와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한 속성중 하나인 민속성은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특정 지역의 민속의상을 패션에 반영하는 이른바 에스닉룩(ethnic look)이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맞아 서구인들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였던 자신들의 문화에 한계를 느껴 변화를 위한 돌파구로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를 통합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향후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이남식, 2000).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에서 간과되어 버리기 쉬운 사실은 자칫 주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체성 상실의 위험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자신들의 전통문화는 서구인들에 의해 종종 재현되는 반면, 정작 자신들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각 민족마다 주체성 있는 세계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적 혹

은 민족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인들의 생활감각에 맞도록 접목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구체물로서 한복을 선택하여, 현대 한국인들의 한복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탐색함으로써, 한복이 현대 한국인들에게 착용되거나 외면되는 이유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우리 민족 문화의 한 상징인 한복의 미래 전개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민속복식의 착용배경

한복은 한민족의 민속복식(ethnic dress)이자,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복식(national dress)이다. 민속복식은 복식이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 중의 하나인 민족 정체감(ethnic identity)과 연결된 복식으로 정의되며(Eicher & Sumberg, 1995), 민족정체감은 혈연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문화와 규범을 구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존재한다(Sarna, 1978). 그러므로 민속복식은 문화의 가시적인 상징인 동시에 다른 어떤 양식들보다도 한 민족과 그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형식이라 하겠다.

그런데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서양복식이 민속복식을 대체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일상 의복으로서 착용되어 왔으나(Bell, 1976), 이와 같이 민속복식 착용이 감소되던 경향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유럽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독립운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족 문화에 대한 복원과 관심(Kang, 1998; Throw, 1997)에서 나타나듯, 민족정체성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민속복식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민속복식 착용의 감소/증가를 다루는 거시적인 연구보다는, 각 집단에서의 민속복식의 변화와 역할, 착용의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미시적 연구가 수행되었다(Crane, Wilson &

Hamilton, 1998; Suga, 1995). 예를 들어, Seng과 Wass(1995)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한 동안 착용되지 않았던 농촌지역의 혼례의상을 다시 전통의상이라 하여 착용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였고, Lynch(1995)는 미국에 이주한 Hmong족이 자신들의 유대와 결속을 위하여 치르는 행사에서 민속복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한복에 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복에 대한 이미지(강혜원·이주현, 1990ab; 이혜숙, 1999), 한복에 대한 기타 의견(김·Nakagawa, 1998)에 국한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적 디자인으로 확대된 개념을 토대로 한 연구(김인경, 1995; 김희정·이경희, 1997)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실제로 한복 착용 또는 비착용의 배경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2. 20세기 한복착용의 변천

20세기에 들어와 남자용 한복은, 구한말 바지저고리에 조끼와 마고자가 더해지고 소매가 넓은 도포가 두루마기로 대체되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사한 양식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서양복의 영향으로 남자용 한복 상의의 길이는 서양 복식의 자켓(jacket)과 같이 길어졌고, 옷고름 대신 매듭단추를 단 생활한복이 등장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조효순, 1989; 이경자, 1991).

반면 여성의 한복에는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받아 한복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었다. 개항 직전 여자용 한복 저고리는 매우 짧고 꼭 끼었으며 진동과 소매통도 좁았으나(조효순, 1989; 이경자, 1991), 개항 이후 신문물을 받아들인 결과 1920~1930년대에는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짧아졌으며, 걸옷의 변화에 맞추어 겹겹이 입던 속옷류도 속바지와 속치마로 간편해졌다(유희경·김문자, 1999).

한편 50년대~60년대 초부터 여성 한복에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 한복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실

용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었다. 고름보다는 단추나 브로치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종아리를 보일 정도로 짧게 착용한 통치마를 애용하였다(진미희, 1990).

1970년대에는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성복 산업의 기틀이 잡히게 되자, 한복은 일상실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복으로서 착용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치마는 A-line 실루엣으로 변화되었고 신발을 가리는 길이로 길어졌으며, 고름을 길게 매는 것이 유행되었다. 실크류 등 고급소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예복으로서의 장식성이 더해져서 금박, 화려한 색채, 대담한 문양, 각종 자수와 나염이 한복에 활용되었다(이경자, 1991; 진미희, 1990).

1980년대에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전통한복으로 복고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연색을 주조로 한 전통적 색 조합과 디자인이 선호되고, 소재는 얇고 부드러운 노방, 주아사, 명주 등이 주로 유행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이래 시작된 생활한복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다양한 생활한복이 등장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들은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을 늘 착용하는 사람(평소에 늘 한복을 착용), 자주 착용하는 사람(일주일에 2~3번 이상 한복을 착용), 때때로 착용하는 사람(명절, 특별한 행사시에만 한복을 착용)과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 등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선정되었다. 이 중 한복 비착용자에는 직업이나 전공으로 인해 한복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착용하지 않는 전문직업인들(예: 국악인, 한의사, 한복연구가 등)과 일반인들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한복착용자 26명, 한복비착용자 27명으로 구성된 총 53명이었으며 이들의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서 비어있는 칸은 해당되는 면접대상자 선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의

미할 뿐이며, 한복착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특정 종교나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한복착용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면접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은 가능한 한 다양하게 분포 되도록 면접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실제 선정된 면접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15명)와 40대(16명)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면접은 1999년 4월에서 2000년 1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면접에는 평균 1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한복을 착용하는 정도와 착용상황, 한복으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 그리고 한복을 착용 또는 비착용하는 이유 및 배경, 한복착용의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피면접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고, 그 응답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된 후, 가감없이 기록되었다. 연구자들은 기록된 면접 내용들을 대상으로 범주 분석(domai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구조화하고 계열화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범주 분석(Domain analysis)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및 비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 자료들로부터 한복착용/비착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그 요인들을 상위의 범주로 계열화시키는 '범주 분석(Domai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범주분석이란, 비수량적인 자료들이 내포하는 공통적 코드(code)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문제의 심층적 배경에 접근하는 체계화된 질적 연구방법이다(Lawrence,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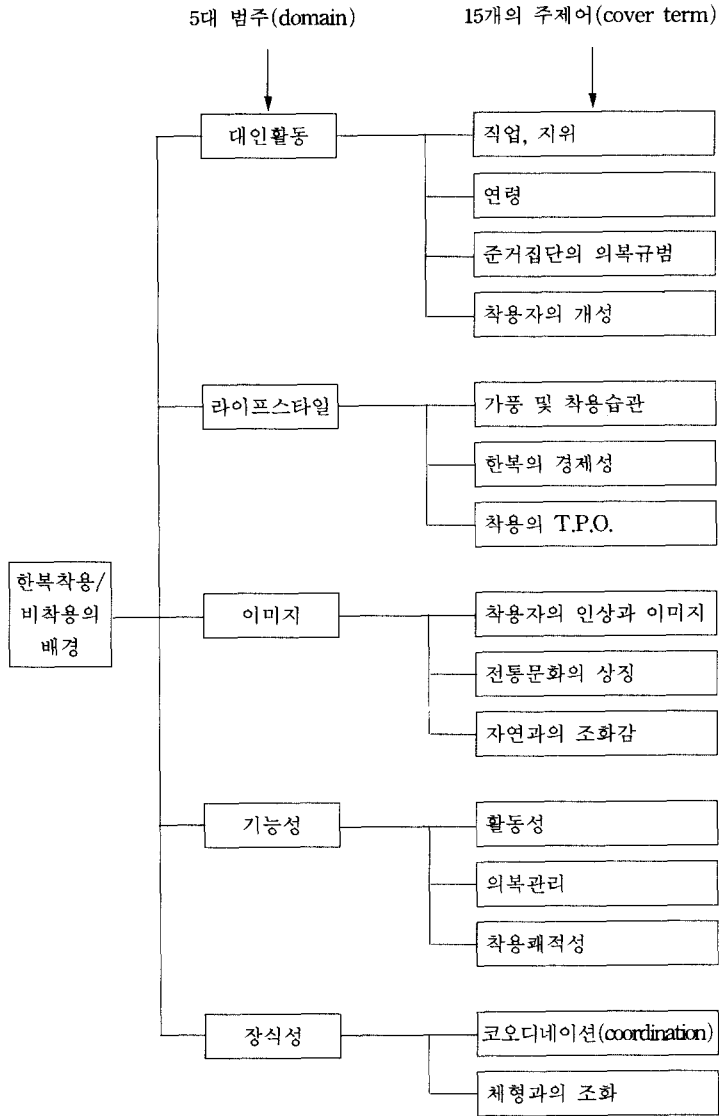
범주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hip)분석이 수행되었다. 의미관계 분석이란, 분석의 대상인 'A'와 그 심층적 배경 'X'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A와 X간에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근거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 'X'들을 상호유사성에 따라 카테고리화시키는 작업이다(Lawrence, 1997). 본 연구의 목표를 위해 분석할 의미관계는 '배경(X)은 한복착용/비착용(A)의 이유이다'와 'X는 한복의 특징이다'였으므로, 양자간의 의미관계를 성립시키는 근거를 면접 자료로부터 발췌 및 수집한 후, 'X'들을 상호유사성에 따라 카테고리화하고 각 카테고리에 주제어(cover term)를 부여하였다.

이같은 의미관계 분석을 거쳐 현대 한국인의 한복착용/비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15개 주제어(cover terms)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제어들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범주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서, 앞 단계에서 얻은 15개 주제어들 중 서로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나아감으로써, 이들 15개 주제어들을 보다 포괄적인 상위 범주들에 소속시키는

<표 1> 면접대상자 분포

한복입는 정도	착용하는 한복의 종류	연령·성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늘 착용	전통한복							1	1		1	3	7
	생활한복			1	2	1						4	
자주 착용	전통한복		1			1			1			3	11
	생활한복	5	1	1		1						8	
때때로 착용	전통한복					5	1	1			1	8	8
	생활한복											0	
착용하지 않음	—	3	5	4	5	3	3	1	1		2	27	27
계		8	7	5	6	6	10	3	4	0	4	53	
		15		11		16		7		4			



[그림 1] 한복 착용/비착용의 배경에 대한 범주분석 결과

위계적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에 해당되는 5개의 범주(domain)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5개 범주들은 착용자의 '대인활동', '라이프 스타일', 한복의 '이미지', '기능성', '장식성' 등이었다. 이상의 범주 분석을 거쳐 얻은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 분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한복 착용 및 비착용의 배경

1) 대인활동

한복 착용 및 비착용의 배경으로서 자주 언급된 범주 중 하나는 착용자의 '대인활동' 측면이었다. <표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 범주에는 소속된 주 제어들은 '착용자의 직업, 지위', '착용자의 연령',

〈표 2〉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 '대인 활동' 범주

주제어 (cover terms)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착용의 이유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비착용의 이유	이유요약	
			착용	비착용
착용자의 직업, 지위	1) 한학자이므로 2) 고전문학 전공자이므로 3) 전통 예술가이므로 4) 한의사이므로 5) (전통 복식사) 강의할 때	1) 직업상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2) 국제회의, 공식행사시 행사 도우미로 오인될까봐 3)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직업, 지위 역할상 필요해서	직업, 지위 역할에 맞지 않아서
착용자의 연령	1) 나이들면 한복을 입겠다. 나이가 들고나니 한복이 입고싶어서 (어울려서) 2) 나이가 든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친근감, 신뢰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1) 젊은 사람에게 한복은 나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 한복을 입으면 늙어 보이기 때문에	연령 역할에 맞음	연령 역할에 맞지않음
준거집단의 의복 규범	1) 종교 집단의 규범 (예: 증산도) 때문에	1) 주위에서 모두 양장을 입으므로 나만 한복을 입으면 쑥스러워서, 남들이 안입으니까 눈에 띄어서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동료, 주변 사람들이 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주변사람 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착용자의 개성	1) 한복은 개성적 의상이므로 2) 개성, 주관에 의해서	-	개성, 주관	-

‘준거 집단의 의복규범’, ‘착용자의 개성’ 등으로서, 한복이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적절한 의복인가, 준거집단의 의복규범과 한복이 다른가, 남들의 이목을 얼마나 의식하는가의 문제 등은 한복 착용 또는 비착용을 가름하는 중요한 배경임을 시사하였다.

착용자의 직업·지위·연령: 한복을 늘 또는 자주 착용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전통에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때에, 직업 정체감은 한복착용의 중요한 동기임을 알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직업정체감보다는 연령 및 지위에 따른 역할이 한복 착용/비착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한복은 젊은 연령에는 어울리지 않는 의복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며, 전통에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들 중에서도 20~30대의 젊은 연령층 사람들은 직업보다는 연령을 더욱 고려하는 경향을, 다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0대 여자 L씨, 국악인/대학생, 생활한복을 자주 착용)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생활 한복을) 외출할 때 입을 수는 없고, 공연할 때만 입고 있어요”. “30대 여자 L씨, 전통복식과 교수, 한복 비착용) 다른 과에서 생

활한복을 입고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과 상관관이 있는 것 같아요.중략...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이가 더 들면 입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의 의복규범: 대다수의 일반적인 한복 비착용자들은 주위 사람들(준거집단)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히’ 한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양복을 의복규범으로 하는 준거집단은 한복을 비착용하는 중요한 배경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경향은 전통에 관련된 직업 종사자에서도 나타났는데, 전통에 관여된 자신의 직업 정체감보다는 준거 집단의 의복 규범을 더욱 중요시하여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40대 남자 K씨, 한의사, 한복 비착용) 갓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을 보면 당당하게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하고 생각도 합니다. ...중략... 그냥 남에게 특별해 보일까봐..... 튀어 보일까봐(한복을) 입지 않

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음 사례들에서와 같이, 한복을 의복 규범으로 삼는 준거집단은 오히려 한복을 착용하도록 이끄는 배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20대 남자 H씨, 증산도/대학원생, 생활한복을 늘 착용] 증산도 도문에 들어오고 나서(생활 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중략... 수행할 때 뿐 아니라 아예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수 있게 생활 한복을 장만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개성(individuality): 한복을 늘 착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준거집단의 규범 등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주관을 중요시하며 이를 옷차림에 표현하기 위해 늘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은 착용자의 강한 개성과 주관이 한복 착용의 중

요한 동기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40대 여자 K씨, 대학교수, 늘 한복 착용] 남의 눈을 의식하고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중략... 내가 그 사람들의 옷을 입는 스타일은 생각 안 했거든요. ...중략... 남들의 반응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2) 라이프스타일

현대 한국인들의 한복 착용/비착용의 배경으로서 ‘대인 활동’ 범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주 언급된 것은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내용들로서, 여기에는 <표 3>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가풍 및 착용 습관’, ‘한복의 경제성’, ‘한복 착용의 T.P.O.’ 등과 같이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전통한복 착용의 기회와 관련된 측면들이 포함되었다.

<표 3>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 ‘라이프 스타일’ 범주

주제어 (cover terms)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착용의 이유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비착용의 이유	주요이유요약	
			착용	비착용
가풍 및 착용습관	1) 어릴적부터 입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 2) 어머니 또는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셔서 입었기 때문에 3) 한복을 입는 습관 때문에 4) 가정(시댁)의 풍습 때문에	1) 부모님 또는 가족 전체가 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2) 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3) 한복을 입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4) 한복 착용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5) 한복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풍 및 성장배경에 따른 한복 착용습관	가풍 및 성장배경에 따른 한복 비착용습관
한복의 경제성	1) (여유분이 많으므로) 신체치수가 변하지 않는 한 오래 입을 수 있으므로 2) 고급 양장보다는 경제적 이기 때문에(상류층예복으로서는 비싸지 않다) 3) 가격대가 다양하므로 4) 재 활용이 가능하므로	1) 자주 입지 않으므로 비경제적이어서(착용기회의 빈도에 비해 비싸다.) 2) 옷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3) 가격이 비싸므로 4) 다 갖춰 입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 환경에 따른 한복착용의 기회가 적음	사회적 여건, 환경에 따른 한복착용의 기회가 적음
착용의 T.P.O.	1) 학부모가 한복을 입고 참가할 것을 요청하는 유치원등의 행사때 2) 교회 행사때 3) 사은회, 망년회, 파티 등의 사교 모임때 4) 혼사 및 집안 행사때 예를 갖추기 위해서 5) 행사의 주인공일 때 한복을 입으면 눈에 띄어서 좋으므로	1) 한복은 특별한 때에 입는 옷으로 인식되므로 평시에는 입기 어려워서 2) 결혼시에 갈때도 일반 하객은 착용하지 않는 관례 때문에 3) 착용할 기회가 없어서 4) 국제적, 국가적 공식 행사 에는 입고 가기 어려워서 (공식의상으로서의 인식 부족 때문에)	특별한 T.P.O.가 생길때	특별한 T.P.O.가 없기 때문

가품 및 착용 습관: 한복에 관련된 가정의 분위기와 습관은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또는 비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복을 늘 또는 자주 착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한복착용 및 관리의 방법과 예절을 배우고 한복착용의 습관과 분위기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50대 여자 K씨, 주부, 전통한복을 자주 착용] (면접 노트 중에서) 시어머님께서 평생 한복을 입으셨고 시아버지께서도 집에서 자주 한복을 입으셨음. 시누이들도 자주 한복을 입었음. 자신도 결혼 후 집안 대소사는 물론 집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음". 반면 한복 비착용자들 중에는, 가족들이 모두 한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30대 여자 Y씨, 주부, 한복 비착용] 친정이나 시가가 아무도 한복을 입지 않으시니까 ...중략... 특히 정초에 세배 드리고 할 때에는(한복을) 입고 싶은데도 아무도 안 입으니까 입지 않게 되요".

한복의 경제성: 한복의 경제성은 착용자의 소득 수준, 일상 생활에서의 한복착용 기회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평가되고 있었다.

상류층의 사람들 또는 일상 생활속에서(전통 또는 생활) 한복을 착용할 기회를 자주 갖는 사람들은 한복을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한복을 '때때로' 이상의 빈도로 착용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한복 비착용자들 중에서도 한복(특히 전통 한복)을 예복으로 생각하고 그 일회성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복을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한복을 착용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중산층 이하가 많음)이나 한복(특히 전통 한복)을 입으려면 모든 것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복 비착용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30대 여자 S씨, 상점 주인, 한복 비착용] 한복이 너무 비싸잖아요. 무슨 행사때 한번 입으려면 한복을 맞추어야 하는데, 양복은 비싸게 주고 사도 여러 번 입을 기회가 있지만 한복은 행사때 아니면 입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한복 착용의 T.P.O.: 한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때때로 착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 한복을 특별한 T.P.O.(결혼식, 회갑연, 교회행사, 유치원 행사)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1970년대부터 전통한복이 일상복으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상실하고 예복화되었던 현상(이경자, 1983)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전통 한복을 착용하기에 적합한 '특별한 T.P.O.'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집안의 결혼식 및 회갑연이었으며, 실제로 대다수의 한복 비착용자들이 자신의 결혼식때 이후에는 한번도 한복을 입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현대 한국인에게 있어 전통 한복은 특별한 T.P.O.를 위한 예복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활한복은 특별한 T.P.O.와 뚜렷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생활한복 착용자들은(특히 남자용) 생활한복이 특별한 T.P.O.가 연관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 사료된다. '[20대 남자 L씨, 대학생, 생활한복을 자주 착용] 생활한복은 구분이 없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입는 옷인지, 편안한 자리에서 입는 옷인지. ...중략... 예를 들어 S교수님은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옷을 입고, 애들이랑 MT.가서 술 먹을 때도 그냥 그 옷을 입고, 산에 갈때도 그 옷 입고...". '[30대 남자 C씨, 증산도 지도자, 생활한복을 늘 착용] 생활한복도 정장용, 캐주얼용으로 나뉘어서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이러한 지적은, 전통한복은 한복 비착용자들에게 있어서도 '결혼식 때 한번 짚은 고 가격에 구입할만한 예복'이라는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반면, 생활한복(특히 남자의 생활한복)은 예복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도 일상 생활에서의 용도나 이미지가 뚜렷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반영하며, 곧 이는 T.P.O. 및 수요에 따라 생활한복의 상품 컨셉(concept) 및 스타일이 미분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이미지

한복의 '이미지'는, 현대 한국인들의 한복 착용/비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중요한 배경이었

〈표 4〉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 '이미지' 범주

주제어 (cover terms)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착용의 이유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비착용의 이유	이유요약	
			착용	비착용
착용자의 인상과 이미지	1) '우아하다, 품위있다, 단아하다, 부드럽다, 여유있다. 2) 조신하다, 예의바르다, 얌전하다, 차분하다. 3) 아름답다(선, 색상), 내면의 멋이 느껴진다. 고전적이다, 화려하다' 등이 이미지를 주므로	1) '늪어보인다 2) 구태의연하다, 비현대적이다, 보수적이다, 둔탁해보인다. 3) (생활한복은) 노동복, 트레이닝복 같다. 촌스럽다. 4) 운동권같다. 위협적이다' 등의 이미지를 주므로	우아함, 예의를 갖춘, 이미지의 추구, 고전적인 미의 추구	현대적, 젊은 이미지 추구, 단정, 온건한 인상의 추구
전통, 문화의 상징	1) 전통의식, 전통적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옷이므로 2) 민족 정체감을 느끼게 하는 옷이므로 3)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우리 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 때문에	-	전통과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 자부심	-
자연과의 조화감	1) 자연으로의 회귀 때문에 2) 인체의 곡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은 한복의 선이므로 3) 생리적으로 건강에 좋은 옷이므로 4) 사람의 손(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이므로	-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관심	-

으며, <표 4>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이 범주에는 '한복착용자의 인상과 이미지', '전통과 민족문화의 상징', '자연과의 조화감' 등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한복을 통해 표현되거나 전달되는 코드(code)를 의미하였다.

한복착용자의 인상과 이미지: 개인이 추구하는 인상이나 이미지는 한복 착용 또는 비착용의 동기로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우아하고 예의를 갖추었으며 고전미가 느껴지는 이미지였으며 이는 현대 한국인이 한복을 착용하는 동기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비현대적이다, 나이들어 보인다'는 이미지였는데, 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한복 착용의 동기가 되는 반면,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게는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인활동' 범주에서 '연령'이 한복 착용에 영향을 미

치는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 착용자의 세 번째 인상/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특히 생활한복은) 운동권같다. 노동복, 트레이닝복(training shirt & pants)같다' 였는데, 이는 한복 비착용자들 뿐 아니라 전통한복을 늘 또는 자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생활한복을 입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써 빈번히 진술되었으므로, 이는 현재의 생활한복 업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료되었다.

전통과 민족문화의 상징, 자연과의 조화감: 한복착용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중요한 이유로써 '한복은 전통과 민족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40대 여자 L씨, 주부, 전통 한복을 때때로 착용]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전통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략...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60대 여자 S씨, 국악인, 전통한복을 늘 착용] 저는 한복을 선조들의 혼이 배어 있는 우리의 뿌리라고 생

각합니다. ...중략... 제가 한복을 즐겨 입는 이유는 직업의식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복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접 사례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 정체감, 자부심은 한복 착용의 중요한 동기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속 복식은 민족정체감과 연결된 복식이라고 진술한 Eicher와 Somber (1995)의 정의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 외에 한복을 착용하는 또 다른 배경은 한복이 지닌 자연과의 조화감이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면접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40대 남자 A씨, 요가 학원 원장, 생활한복을 늘 착용] 한복의 선은 자연이 빚어 놓은 인체의 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한복의 기능성

한복의 '기능성' 측면에 포함된 주제어들은 <표 5>에 요약된 바와 같이, 착용시의 '활동성', '의복

관리', '착용 쾌적감' 등이었다.

활동성: '활동성'에서는 전통한복과 생활 한복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고찰되었다. 전통한복을 자주 입지 않는 응답자들(모든 한복 비착용자와 때때로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전통 한복이 일상 활동에 불편한 의복임을 언급하였으나, 이에 반해 전통 한복을 늘 또는 자주 착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통한복은 몸을 조이지 않으므로 넥타이를 갖춰 입는 양복 정장보다 더 편안한 차림'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양복 정장에 비교한 상대적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의 비활동성을 개선한 활동적인 의복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활동성은 생활한복 착용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한복의 여유있는 실루엣이 갖추어야 할 속성은 단순한 활동성이 아니라 '편안하고 활동적이면서도 격식을 갖춘 이미지'라는 복합적 속성이어야 함을 다음의 면접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30

<표 5> 한복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어와 이유- '기능성' 범주

주제어 (cover terms)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착용의 이유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비착용의 이유	이유요약	
				착용	비착용
활동성	전통 한복	1) 편안하기 때문에 조이지 않는 옷이어서 2) 자세가 편해서, 주름지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3) 넥타이가 필요없는 옷이므로	1) 가슴을 조이기 때문에(여자). 2) 거추장스럽고(여자한복은) 승차할 때와 팔들기,걸기에 불편하고 목선이 드러나서 활동에 불편하기 때문에 3) 잘 구겨지고 음식을 묻힐까봐, 화장실 갈 때 불편해서	편안함과 격식을 갖춘 복장의 필요	일상 동작시, 활동시의 불편함
	생활 한복	1) 활동에 편해서, 조이지 않는 옷이어서 2) 자세가 편해서 3) 넥타이가 필요없어서 4) 지퍼, 주머니가 달려 있기 때문에	-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한복의 필요	-
의복 관리	전통 한복	1) 드라이클리닝을 하므로 (다림질이 필요없고) 관리가 쉬워서	1) 쉽게 더러워지며 물세탁을 할 수 없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하므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관리의 불편함을 못느낌	관리의 불편함
	생활 한복	1) 물세탁이 가능하므로 관리가 쉬워서	-	관리의 편리성	-
착용 쾌적성		1)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이므로	1) 겨울에는 소매와 목부분의 구 조로 인해 보온성이 부족해서	기후에 적합한 소재	보온성이 낮은 의복구조

대 남자 C씨, 종교 지도자, 생활한복을 늘 착용) 한복 바지가 ...중략... 여유있는 모양이 보기 좋은 것이 한복의 멋인 것 같았는데, 트레이닝복 같아보였거든요”.

의복 관리: 많은 응답자들이 전통한복은 물세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착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데에 반해, 전통한복을 늘 또는 자주 착용하는 사람들은 ‘양복 정장도 물세탁을 할 수 없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견주어 지적하였다. 한편 물세탁을 할 수 있다는 생활한복의 편이성은 생활한복을 착용하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착용쾌적성: 전형적인 한복의 소재 중, 특히 여름용 한복 소재인 모시의 시원함과 쾌적함은 여름철 한복 착용의 중요한 이유로서 언급되었으며, 개폐구조 등으로 인한 방한성의 결여는 겨울철 한복 비착용의 이유로 나타났다.

5) 한복의 장식성

한복의 ‘장식성’ 측면에 포함된 주제어들은 <표 6>에 요약된 바와 같이, ‘코오디네이션(coordination)’과 ‘체형과의 조화’ 등으로서 신체 장식 도구로서 한복이 지니는 측면들을 포함하였다.

코오디네이션(coordination): 한복은 일반적으로 코오디네이션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전통한복은 머리 모양으로부터 소품과 속옷에 이르기까지 갖춰 입기가 번거롭다는 점, 생활 한복은 단품 간의 코디네이션도, 단품 생활한복과 양복과의 코디네이션도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

는 한복 비착용의 이유 중 한 가지였다.

체형과의 조화: 한복 비착용자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체형은 한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술한데 반해, 한복을 자주 또는 늘 착용하는 사람들은 한복은 체형의 결점을 가려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한복과 체형간의 조화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결과는 한복착용의 배경으로서도, 비착용의 배경으로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복 착용을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현대 한국인들에게 한복이 착용되거나 외면되는 배경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복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의 전망을 탐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및 비착용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복을 통한 민족 문화 계승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조망하였다.

전통 한복의 일반적인 착용 배경: 전통한복은 50대 이상의 연령층 및 우아하고 품위 있으며 고전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 전통 문화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주로 착용되고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전통 한복은 몸을 조이지 않는 정장 및 특별한 T.P.O.를 위한 고급 예복으로서 착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통 한복을 착용하는 기풍과 어려서부터의 착용 습관은 전통한복을 착용

<표 6> 한복착용/비착용의 배경- ‘장식성’ 범주

주제어 (cover terms)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착용의 이유	주제어에 관련된 한복비착용의 이유	이유요약	
			착용	비착용
코오디네이션 (coordination)	-	1) 갖춰 입으려면 준비할 것 (속옷, 머리모양, 소품)이 많아서 번거롭기 때문에 2) (생활한복은) 양복 단품과의 코디가 어렵기 때문에	-	coordination의 어려움
체형과의 조화	1) 작은 체구에 어울리므로 2) 체형의 단점을 가리므로 3) 어깨가 좁고 처져서 목이 길어 보이므로	1) 몸매가 한복에 어울리지 않아서(어깨가 솟고 넓은 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체형의 결점을 가림	체형과의 부조화

하는 중요한 배경이며, 전통 한복이 지닌 민족문화의 상징성, 자연과의 조화감 등은 전통 한복을 착용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생활 한복의 일반적인 착용 배경: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의 우아함, 품위, 고전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겸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전통문화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주로 착용되고 있었다. 생활한복은 전통을 표현하면서도 관리하기 편리하고 활동에 편한 일상 의복으로서 주로 착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착용의 T.P.O.에 따라 미분된 생활 한복의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복 비착용의 일반적인 배경: 20~30대를 중심으로 많은 현대 한국인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복이 자신의 직업, 지위, 연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에서 벗어난 의복이라는 것, 한복을 착용할 만한 특별한 T.P.O.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추구, 한복착용자는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기 쉽다는 것, 한복은 활동 및 관리에 불편하며 갖춰입기에 번거롭다는 것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대 한국인들이 한복을 착용하지 않는 중요한 배경은 민족문화에 대한 무관심이나 민족정체감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복이 한국 사회의 서구화된 구조와 생활양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의복을 포함한 사회 규범의 상징들이 대부분 서구적 기준에 의한 것들로 대체되고, 전통과 민족문화에 관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들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인들은 한복 차림에 적합하게 개발되지 않은 각종 기기와 설비를 일상 활동 시 뿐 아니라 레저활동과 교통통신에서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의 생활 환경 속에서 한복이 존립 계승되어 갈 수 있는 방향은, 첫째 민족문화의 상징으로서의 특별한 효용성 및 위치를 고양시키는 것과, 둘째 현대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에 적응된 스타일을 개발해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한복을 착용할 기회가 위축되고 미적 기준과 의복규범이 서구화된 현대 한국인의 생활문화 속에서 민족문화의 상징으로서의 한복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직업, 지위, 연령이나 준거집단의 서구적 의복규범에 의해 크게 제약받지 않는 특별한 T.P.O.용 고급 예복으로서의 전통 한복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옛 시대의 전통 한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현대적인 기준에 맞는 우아함과 고급감, 자연과의 조화감을 아우르면서도 전통성을 살린 전통 예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전통예복의 개발과 아울러, 이러한 한복을 입을 필요가 있는 가족, 사회, 학교, 문화 행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사나 상황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큰 규모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그와는 달리 가정이나 소규모 집단에서도 주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 따라서 한복을 자주 입어야 하는 하위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집단이 좀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나 명절 때 한복을 자주 입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한국사회의 서구화된 생활문화와 양식 속에서 생활복으로서의 한복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한복업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생활한복은 기능성과 우아함, 품위, 고전성, 자연과의 조화감을 겸비한 가운데, 착용의 T.P.O.에 따라 미분화된 상품 컨셉(concept)이 구축되고 이에 맞는 상품 스타일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활의 T.P.O.에 대응되지 못하는 의복은 진정한 생활 속의 의복으로서 자리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복과의 코오디네이션이 가능한 혼합형(fusion) 스타일, 다양한 체형에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의 생활한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는 연령분포가 20대와 40대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연

구의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혜원·이주현(1990a).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 강혜원·이주현(1990b).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2), 73-84.
- 금기숙(1995).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 김유미, Nakagawa(1998). Comparison of conscious attitudes toward ethnic costumes. 일본가정학회지, 49(4), 417-426.
-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536-547.
- 김희정·이경희(1997).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3), 589-599.
- 류호창(2000). 신 문화코드, 퓨전, 디자인, 260호, 124-127.
- 유희경·김문자 공저(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366-369.
- 이경자(1987). 전통복식의 미적고찰,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63-88, 330-334, 339-346.
- 이혜숙(1999).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무늬 종류, 형태, 배열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7), 921-928.
- 조효순(1989). 복식, 대원사, 60-64.
- 조효순(1992). 한국 복식 풍속사 연구. 일지사.
- 진미희(1990).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을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제 15호.
- 홍나영·김찬주·유혜경·이주현(1999). 아시아 전통문화 양식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문화연구(2보) -아시아 민속복식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지, 17집, 315-334.
- Crane, T., Wilson, L. & Hamilton, J.(1998). Dress and Ethnicity: a Scottish-American exampl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56-57.
- Eicher J. Sumberg, B.(1995). World fashion, ethnic and national dress, in Joanne Eicher(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 Berg.
- Kang, L.(1998). Is there an alternative to (capitalist) globalization? The debate about modernity in China. in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Lawrence, N. W.(1997).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Massachusettes: Allyn & Bacon
- Lynch, A.(1995). Hmong American new year's dress: the display of ethnicity. in Joanne Eicher (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 Berg.
- Sarna, J.(1978). From immigrants to ethnics: towards a new theory of 'ethnicization'. Ethnicity, 370-378.
- Seng, Y. & Wass, B.(1995). Traditional Palestinian wedding dress as a symbol of nationalism, in Joanne Eicher(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 Berg.
- Suga, M.(1995). Exotic west to exotic Japan: revival of Japanese tradition in modern Japan. in Joanne Eicher(Eds). Dress and Ethnicity, Providence: Berg.
- Throw, L.(1997). The future of capitalism. NY: Penguin Books.